



Who is my Neighbor?

Fr. Robert Barbato, OFM Cap.

주: 손님 기고 작가: 로버트 발베이토 신부님, OFM Cap.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국립 성당의 새로 임명된 주임신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께서 존 델라리바 신부님, OFM
Cap(재속회를 위해 새로 영적 보조자로 임명됨)을 위해서 집필해
주십니다.

한 서기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곤경에
빠진 사람의 이웃이 누구였습니까?”라고 되물으셨습니다. 물론
그 대답은 참된 사랑과 관심으로 그 사람을 대했던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서기관(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웃인지를 생각하지 말고,
심지어는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이웃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셨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스스로를 “프란치스코 형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단순히 호칭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세상과 가지고 싶어한 관계를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젊은시절 프란치스코는 형제 자매는 커녕 한번도 나병환자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미워하고
피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그를 그들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쓴 것을 영혼과 육체의 단맛으로 바꾸신 것은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 프란치스코는 “나병환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역겨운 질병이 아니라 하느님의
형상대로 빛어진 사람으로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를
비웃고 알잡아보고 바보라고 부르는 이들을 형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형제가 되는 법을
배우기 위해 많은 기도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이 사실은
프란치스코가 자신에게 동의하지 않거나 단순히 함께 살기 힘든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음을 발견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형제가 되는 법을 배우려고 애쓰면서 또한

모든 존재가 같은 창조주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는 모든
피조물의 형제라는 깨달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물론
프란치스코를 형제인 해와 자매인 달처럼 같은 신에 의해 창조된
모든 피조물 안에서, 그를 통해, 그리고 피조물을 위해 신을
찬양하는 “태양의 노래”를 작곡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프란치스코를 따르는 우리는 형제애의 중요성, 서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대해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형제 공동체로 이끌어 서로를 돕고 형제 자매
안에서 힘을 찾도록 부르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하느님은 또한 우리를 형제애로 부르셔서 서로 참는 법,
서로 인내하는 법, 가장 성가시게 하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하는 법을 배우도록 부르십니다. 형제애는 서로를
위한 기도와 실제 생활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더라도 각각의
사람들이 하느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에
마음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프란치스코처럼 우리가
스스로를 “형제” 또는 “자매”라고 부르고 그 호칭이 의미하는
바를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모든
피조물과 깊은 연대를 이루고 참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쓴 것을 영혼과 육체의 달콤함으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요. 그만한
가치는 있을까요? 분명히 확실하게요.

주님께서 항상 축복하시고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